

“나눔은 관심”…100원회 온정 올해도 이어졌다

신가동행정복지센터서 24명에 장학금 570만원 전달 김희만 회장 “전국서 26년째 선행…지속적 나눔 감사”

경기 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100원회의 온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100원회(회장 김희만)는 29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신가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중·고·대학생 24명에게 희망 장학금 570만원을 전달했다. 이진(서영대 4년) 대학생 등 9명에게는 장학금 30만원씩, 정다인(문정여고·3년) 등 중·고등학생 15명에게는 장학금 20만원씩이 주어졌다. 이진씨는 “전국적으로 각계각층 사람들이 올해로 26년째 하루에 100원씩 모아 선행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고, 이 장학금 역시 그 과정에서 마련돼 더욱 뜻깊다”며 “사회에 진출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희만 100원회 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며 “지난 26년간 변함없는 신뢰 속에 성원을 보내 주신 회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전달한 100원회는 이날 창립 제26주년 기념식도 겸했다.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25년째이며, 지금까지 대학생 266명, 중·고등학생 883명 등 총 1천149명에게 1억9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광주 5개 구청에서 추천받아 선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장학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강원도, 수도권, 영남권 등 전국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은 100원회(회장 김희만·두 번째 줄 오른쪽서 다섯 번째)가 29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신가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중·고·대학생 24명에게 희망 장학금 570만원을 전달했다. (100원회 제공)

각지에서 700여명의 회원이 하루 100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은 새 도로명주소 실시와 휴대전화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온라인 강화를 통해 ‘제2의 100원회’ 활성화에 정성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주성학기자

김영우 34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취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김영우(55·사진) 제34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27일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안전, 민생,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현장 중심의 환경, 제갈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홍수대응 시스템 강화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지역의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 출신인 김 청장은 서울시립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와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성학기자



전남도-시·군 ‘여성친화도시 성과 교류회’ 성료

전남도는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전남형 여성친화도시 성과 추진을 위해 2024년 전남 여성친화도시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돌봄,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선 여수·순천·광양·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 등 8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연찬회에선 도·시·군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공 요인,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정기자

전남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례는 ▲여수 여성안심프로젝트 ▲광양 아이키움센터 방학 기간 급식 지원 ▲순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장흥 토요시장 어머니 뒷밭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우수 평가 7개 선정 ▲여성농업인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사업 ▲여성정책포럼(22개 시·군 132명 회원) 활성화 등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전남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과 교류회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장성교육청, 영·호남 교육지도자 공동연수 운영

장성교육지원청은 “최근 이틀간 올해 하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를 위한 장성-안동 교육지도자 공동연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수에는 장성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원)장 19명 등 교육지도자 27명과 안중환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안동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원)장 등 3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안동 소재의 ▲응부중학교 ▲이육사 박물관 ▲도산서원 ▲어린이 박물관·권정생생가(안동) 등을 방문해 양 시·군의 지속적인 교류 및 상생·협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를 가꾸며 창의적이고 포용

적인 글로컬 인재육성에 정성을 다하는 장성교육과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희망 안동교육’의 네 번째 만남의 장으로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중환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동과 장성 간 교육 및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미래 교육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 교육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성교육과 안동교육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자”고 화답했다. /장성=김문태기자

한수원, 한빛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9일 “지난 28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민 대상 공청회는 주민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취지 설명,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주민공람 주요 의견 설명, 주민 의견 진술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최현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공청회를 통해 한빛1·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



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원자력발전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농협 담양군지부-그랜드유치원 ‘쌀 소비 촉진’ 협약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최근 광주 폴리어학원 관산캠퍼스-그랜드유치원을 방문, 아침밥 먹기 홍보와 쌀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수완지구에 위치한 폴리어학원 관산캠퍼스와 그랜드유치원은 원생 400명이 등원하는 영유아 교육시설로, 매일 원생들에게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쌀을 원료로 하는 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식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희미 그랜드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이기복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은 “지속적으로 원생들과 소통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규기자

광주소방본부, ‘9월 우수 소방인’ 5명 표창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9일 “지난 27일 본부 회의실에서 ‘9월 광주소방을 빛낸 우수 소방인’으로 김미송·김현미·문성환·이승용·강다연 소방관을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김미송·김현미 소방위와 문성환 소방장은 시청사 내에서 심정지 환자의 119신고 접수되자 급급차가 도착하기 전 즉시 현장으로 출동,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을 회복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이승용 소방위는 불용소방차 무상 양여와 파라이소방대 초청 연수사업을 추진하며 양국간 재난대응체계를 공유하고, 광주소방의 소방역량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강다연 소방장은 전국소방안전강사경진대회 보조 강사로 활동하며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며 금색 하트 세이버 배지를 수여 받는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9월의 광주 우수 소방인’에게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광주시장 표창이 주어졌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소방 정책을 추진하는 우수 소방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 市교통정보센터 방문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남구 월산동 광주시교통정보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교통업무 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광주시교통정보센터는 교통 관제 및 지령 등 교통 관리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통신호 제어와 운용, 실시간 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 교통 시설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광주경찰청, 광주시청, 도로교통공단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교통경찰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장 직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광주자치경찰위원회도 함께 발로 뛰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박창식 제14대 목포문화원장 선출



목포문화원 제14대 원장에 박창식(65·사진) 현 목포문화원 부원장이 선출됐다.

29일 목포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열린 목포문화원 임시총회에서 제14대 목포문화원장으로 박창식 현 부원장이 선출됐다.

목포문화원은 현 김경치 원장의 임기가 오는 10월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운영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승인 여부를 물었고,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박창식 후보를 제14대 목포문화원장으로 결정했다.

박창식 당선인은 “목포문화원 60년 역사가 누가 되지 않도록 근면성실,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포문화원 발전과 지역 문화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차기 목포문화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 4년이며, 김경치 제13·14대 목포문화원장이·취임식은 오는 11월1일 열릴 예정이다.

(유)청호엘리베이터 대표이사인 박창식 제14대 목포문화원장 당선인은 국제외이즈맨 전남 지부 총재, 목포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목포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GS칼텍스, 산단 디지털 전환 챌린지 참여

여수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인 GS칼텍스 ‘산단단지 디지털 전환 챌린지’에 참여하며 산업단지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29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챌린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감대 형성과 기업의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GS칼텍스는 디지털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AI 기반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길 바라며, 이러한 활동이 산업 전반에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선진기자

인사

더팩트 광주전남취재본부 ▲대표 문승용 ▲본부장 이종형